

| 발 행 일 자 | 2017년 8월 25일

| 발 행 인 | 별별신문_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이룸이들의 편지

혼이 나갈 것 같은 더위도 한풀 꺾여 저녁은 제법 선선한 요즘이지요. 6, 7월 말에 이태원에 왔을 때 덥겠다며 언니들이 걱정해주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언니들 그간 안녕하셨어요?



이룸이들이 2015년 5월부터 언니들을 뵈는 지 어느새 햇수로 **3년** 이 되었어요! 처음 이태원 방문을 앞두고 별별신문과 물품을 준비하면서 낯선 방문을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물품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닐지 온갖 걱정을 다 했던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뒷면에 계속)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이룸이들이 계속 이태원에 방문하고 있다고 **뽕뽕** 알리고 싶기도 했고, 언니들께 저희와의 만남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드려요.

그 간 언니들과 만나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 이제는 방문할 때마다 반겨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요. 더불어 이태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설레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용. 방문하는 이룸이들도 그 동안 바뀌었고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앞으로 언니들과 물품에 대한 의견, 별별신문 구독 소감, 따끔한 지적과 칭찬, 이룸 상담소에 대한 궁금함 모두모두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끝으로 이룸이들을 늘 환대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이태원 언니들 모두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2017년 8월 25일 용두동 이룸이들 드림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은 당연하구요!

이룸상담소 02-953-6279